

국별 리포트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8

I.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G D P	7,884억 달러
인구	74.70 백만명	1 인 당 GDP	10,550달러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1.80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7,4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으로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2004년부터 EU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던 가입협상이 최근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포스트 브릭스(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부터 FTA를 체결하여 2013년 5월 1일 상품 분야 FTA가 발효된 바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EU의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2013년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 터키는 2000~01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IMF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2004~07년 평균 7%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기록함.
- 2002년부터 집권한 현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부문 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등의 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 수출시장이자 투자국인 유럽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였음.
- 2009년 4분기부터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2010년에는 9.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에도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및 소비지출의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이자지급 감소 등으로 8.8%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 2012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터키 정부의 긴축 정책 및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2%로 낮아졌음.
- 2014년 8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 및 공공부문 고정투자 확대에 따라 2013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 9.3%('10) → 8.8%('11) → 2.2%('12) → 3.5%('13^f)

○ 2012년에는 수입물가 상승과 전기 가스요금 및 각종 간접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로 상승함.

- 2012년 터키 정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가솔린, 주류,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였음. 특히, 자동차의 경우 터키 전체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600cc 이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량가격의 37%에서 40%로 인상시켰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8.6%('10) → 6.5%('11) → 8.9%('12) → 7.6%('13^f)

○ 2013년 리라화 약세로 인해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나, 낮은 국내수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7.6%로 예상되나 중앙은행 목표치인 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제 구조적 취약성 극복

○ 과거 터키는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 번번히 IMF의 차관을 지원 받아 왔음. 그러나 2008년 5월 IMF의 대기성 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추가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및 환율불안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국제신용 평가기관들도 터키의 경제체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 터키 정부는 2014-16년 중기경제프로그램 발표를 통하여, 경상수지 적자 및 물가상승률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과 고용을 늘리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둘 것임을 밝힘.

- 동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2년 기준 2.2%에서 2015년까지 5%로 상승시키는 한 편, 터키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물가상승률은 2014년까지 5.4%로 낮출 예정임.

나.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 풍부한 노동력 보유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함. 터키를 중심으로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 아프리카,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인종적·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터키의 평균연령은 30.1세로 경제능력인구(15~64세)가 67.6%로 청년 계층이 풍부하고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수준, 근로 의욕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터키 노동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터키 노동자들은 문맹률이 낮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높은 편이며 주변 유럽국가들에 비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성실하다는 평(주 6일 45시간 근무가 기본으로 평균 결근율은 1.5% 미만)을 받고 있음.

□ 적극적인 경제개혁 추진

- 터키 정부는 민영화청(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을 통해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개입 최소화, 정부채정 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추진.
 - 전력배급과 도로 및 교량부문의 매각을 통한 활발한 민영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 방위, 의료 등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터키 정부는 인프라 개발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철도민영화법이 제정된 데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PP 촉진법이 제정되었음.

□ 동서를 연결하는 에너지 수송 허브

-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가스관 및 송유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입지 구축
- 터키 주변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산유국인 이란, 이라크와도 국경을 맞닿아 있는 등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 러시아, 이란,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수송관으로는 Baku-Tbilish-Ceyhan(BTC) 송유관과 Baku-Tbilish-Erzurum(BTE) 송유관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가스관을 구축하는 Southern Corridor 프로젝트, 카스피해에서 불가리아 국경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인 TANAP(Trans-Anatolia Pipeline)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이에 더해, 안정적인 국내 경제 성장을 토대로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등 수송관의 중간 경유지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지로서의 적합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

다. 정책성과

□ 터키 민주화 개혁 패키지 추진

-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민주화를 위한 주요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임.
-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원내정당 진입에 필수적인 득표율을 현행 10%에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소수자 문화 보호 강화 등 다방면에 걸친 민주화 조치를 담고 있음.

- EU는 2013년 10월 개최된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터키 정부의 동 조치가 그 동안 터키의 EU 가입에 걸림돌이었던 비민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밝히고,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재개를 회원국 정부 앞 권고한 바 있음.

□ **지난 2013년 5월 IMF 채무 전액 청산**

- 터키는 2013년 5월 IMF 채무액 4억 1,200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IMF에 대한 모든 채무액의 상환을 종료함.
- 지난 1961년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이래 19회의 대기성 차관 협상을 통하여 총 565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던 터키 정부는 이로써 채무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기조**

- 터키는 중간재 및 원자재(석유, 가스, 철강)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낮아 저가제품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리라화 강세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6.2%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2011년에도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9.7%까지 확대되었음.
- 2012년에는 수입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광수입 및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6.1%로 개선되었음.
- 2012년 수출액 증가는 이라크, 이란, UAE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에서 기인함.
-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국내수요 증가 및 리라화 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악화된 -7.4%의 적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GDP: -6.2%('10) → -9.7%('11) → -6.1%('12) → -7.4%('13^f)

□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 터키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 외국인투자법개정, 법인세 감면 및 포괄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대외 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WEF): 61/139('10) → 59/140('11) → 43/144('12)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IFC): 73/183('10) → 71/183('11) → 68/183('12)

○ 터키는 주요 투자기관 및 연구소들로부터 브릭스(BRICs)에 근접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차세대 신흥국으로 꼽히며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NEXT-11(골드만삭스), BEM(미국 상무부), VISTA(일본 브릭스 경제연구소) 등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12,168	-45,447	-75,092	-47,748	-60,047
경 상 수 지 / GDP	-2.0	-6.2	-9.7	-6.1	-7.4
상 품 수 지	-24,768	-56,324	-89,038	-65,223	-76,277
수 출	109,729	120,991	143,497	163,329	165,835
수 입	134,497	177,315	232,535	228,552	242,112
외 환 보 유 액	70,874	80,713	77,756	99,943	95,030
총 외 채 잔 액	272,144	303,309	323,841	380,289	403,404
총외채잔액/GDP	44.2	41.5	41.8	47.2	47.7
D S R	45.1	35.8	26.7	22.3	19.6

자료: IFS, EIU.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외채구조의 점진적 개선에도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편

○ 총외채잔액은 2011년말 3,238억 달러, 2012년 말 3,80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역시 전년대비 상승한 4,0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2011년 41.9%, 2012년 48.3%, 2013년 49.3%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09년 70%대까지 감소하였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1년 이후 외채증가와 함께 108%를 기록하는 등 다시 100%대의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2012년 들어 103%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3년 116.8%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높은 단기외채 비율로 인해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이 큰 것이 터키 외채구조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힘에 따라 터키 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98.8%('10) → 108.3%('11) → 103.2%('12) → 116.8%('13^f)
- 단기외채잔액(백만 달러): 79,757('10) → 84,230('11) → 103,163('12) → 110,966('13^f)

□ 변동성이 크고 높은 수준이었던 DSR은 하락 추세 지속

○ 과거 터키의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30~40%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었으나,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200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 22.3%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9.6%로 전망됨. 하지만 세계은행에서 외채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간주하는 1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DSR: 45.1%('09) → 35.8%('10) → 26.7%('11) → 22.3%('12) → 19.6%('13^f)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의 재집권 성공으로 정치안정성 제고

○ 2002년부터 집권해 온 정의개발당(AKP)은 2011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이후 총리직을 수행(연임)하고 있으며,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있음. 현 압둘라 굴(Abdullah Gul)대통령은 2007년 의회에서 선출되었음.

- 현 여당은 50%대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500석 중 327석(약65%)을 차지함. 이는 10% 미만을 획득한 정당은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 관련법을 따른 데 기인함.

□ 2014년과 2015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연이은 중요선거 예정

- 2014년 3월 지방선거에 이어 2014년 8월에는 직선으로 처음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음.
- 현재, 여당인 AKP의 강력한 대항마가 없는 상태이며, 총리직의 4선을 금한 AKP의 당헌에 따라 현 수장 에르도안 총리가 2015년 총선 이전 총리직을 내놓고 201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에르도안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적 안정도는 비교적 양호

- 터키 국민의 99%는 이슬람교(수니파)를 믿고 있으며, 1923년 아타투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 간 분쟁은 없는 편임. 터키 국민은 성격이 급하나 근면하고 소박한 편으로 알려짐.

□ 쿠르드반군 PKK의 휴전 선포로 화해무드

- 터키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주로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족 반군(PKK)의 분리운동 및 충돌사태가 발생했음.
- 터키 쿠르드 족은 상대적으로 정치 활동이 적은 편이며, 터키의 EU 가입에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계속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의 평화적인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인접한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 연맹이 의석의 1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는 터키에서는 상대적으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작은 편임.

- 2013년 3월, PKK의 지도자인 압둘라 외잘란이 PKK 요원들의 무장해제와 철수를 촉구함에 따라, 북부 이라크를 본거지로 한 전투사령부의 Murat Karayilan 사령관이 PKK 관련 모든 조직의 휴전을 선포하였음.
- PKK는 지난 2013년 5월 터키 영토를 떠나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철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5월부터 반군들은 북부 이라크 지역으로 철군을 시작함.
- 2013년 9월 PKK는 터키 정부의 평화협상안 불이행을 이유로 터키 내 철군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터키 정부와의 협상이 계속되는 등 평화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 터키 언론들은 PKK 측의 철수로 30여년간 지속된 분쟁이 해결될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으나, 1999년 휴전선언, 2010년 휴전선언이 각각 파기된 사례를 볼 때,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 반정부 시위 및 간헐적 테러 발생

- 2013년 3월 터키 법무부 및 정의개발당 청사를 대상으로 한 폭탄공격이 발생하여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 발생
- 다수의 언론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터키 정부와 PKK 지도자 외잘란 간 평화협상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터키 정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족과의 평화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2013년 6월 탁심광장 재개발 반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진압으로 시위 확산
- 처음에는 공원재개발에 반대하는 생태주의자들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경찰들이 물대포와 최루제를 사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이스탄불, 앙카라 등 48개 주와 90개 도시에서 시위 발생. 동 시위가 장기화되며, 관광 및 서비스업계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 동 시위는 7월 터키 의회가 공원 개발을 무효로 하면서 사실상 일단락 되었으며, 이후 소규모 형태의 시위가 이어지다 9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표면적으로는 공원재개발에 대한 반대시위의 성격이나, 이면에는 집권 여당의 이슬람 정치이념 도입에 대한 세속주의 세력의 반발로도 볼 수 있음.

3. 국제관계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실용적 중도노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서방과 중동 국가간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엄격한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
- 또, 이슬람국가 중 유일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1947년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하여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시작한 이후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 체결,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
- 에르도안 총리의 연임(3선)으로 기존의 대외관계 및 외교노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가스관 건설 관련 유럽과 러시아 모두를 지지하는 중립적 입장

- 현재 EU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Gazprom)는 이탈리아(Eni)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을 확고히 장악하고자 하고 있음.
- 터키는 현재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나, 유럽의 압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을 승인(2011년12월)하여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및 테러 발생으로 양국간 긴장 고조

- 터키 정부는 과거 시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시위 유혈진압에 대해 비난하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 시리아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심화되며 터키 남부시리아 국경지대에서도 폭격 및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시리아로부터 17만명(2012년말 기준)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2012년 6월 시리아 공군은 터키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같은 해 10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지역(Akcakale)에도 시리아 군의 박격포 공격이 있었음. 또한 2013년 2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 인근(Cilvegozu)에서 대규모 차량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사이프러스의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는 담보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 2004년 5월 남부 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 사이프러스만 정식 국가로 승인함. 이에 터키 측은 남사이프러스에 영공 및 자국항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사과로 양국간의 외교관계 회복 조짐

- 2010년 5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난민구호선을 공격하여 터키인 9명이 숨진 이후, 터키에서는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양국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왔음.
- 그러나 2013년 3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에게 과거사를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터키 측에서도 이스라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시사함.

□ EU 가입협상 재개 가능성

- 터키는 199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2004년 EU의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하여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음.
- 터키 정부는 사형제도 및 국가안보법 폐지 등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가입이 지연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쿠르드족 반군 PKK 지도자 외갈란의 무장해제 및 터키 국내 철수 발언에 이어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유럽연합이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회원국 정부 앞 터키의 EU 가입 협상 재개를 권고하는 등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경제구조 개선 노력으로 IMF의 긍정적 평가

- 터키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유동성 위기가 자주 발생하여 과거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거나(1978년 13억 달러, 1979년 12억 달러, 1982년 30억 달러), IMF의 대기성 차관(1984~2005년, 총 520억 달러)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재정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해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2008년 5월 IMF의 대기성 차관이 종료된 이후 추가지원을 받지 않았음. 2012년 6월 IMF는 유로존 위기와 선진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2013년 5월 마지막 채무액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IMF 채무 잔액은 없는 상태이며, 2012년 말 기준 대외채무액은 약 3,4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43%에 이르나,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님.

□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연체 실적 미미

- 2012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29억달러, 중장기 271억달러로 총 300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160만 달러로 전체의 0.04%에 그쳐 공적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 실적에 대한 모델 등급은 0등급(0.4%)으로 최상위 수준임.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터키 신용등급은 상향 추세

- 2012년 11월 Fitch는 공공부채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수출 다변화 및 건전한 은행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터키가 지속 가능한 경제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 하였음.
- 2012년 6월에 터키 정부채권의 신용등급을 Ba1(투자적격 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으로 상향 조정한 Moody's도 2013년 1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 5월 터키의 구조적·경제적 제도개혁의 성과에 따른 대외건전성 개선을 사유로 또다시 Ba1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2013년 3월 S&P도 터키의 2012년 경상수지 적자 감소, 재정건전성 강화 및 쿠르드족과의 긴장완화를 이유로 3년만에 등급을 BB+로 상향조정하였음.

- OECD: 5등급(2004. 1) → 4등급(2008. 1) → 4등급(2013. 1)
- S&P: BB-(2004. 8) → BB(2010. 2) → BB+(2013. 3)
- Moody's: Ba3(2005. 12) → Ba2(2010. 1) → Ba1(2012. 6) → Baa3(2013. 5)
- Fitch: BB-(2005. 1) → BB+(2009. 12) → BBB-(2012.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양국간 무역불균형(우리나라의 대 터키 출초)

- 양국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7~09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한 이후 2010년에 42억 달러, 2011년 58억 달러로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에는 52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 특히, 2009~11년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흑자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해 대 터키 무역흑자 규모는 2009년 22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2억 달러, 2012년에는 39억 달러로 터키는 우리나라의 11대 무역흑자국이 되었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과 철강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터키의 10대 수입국임.

<표 3> 한·터키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3752,906	5070,997	4551,618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516,290	804,624	672,311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의류
합 계	4,269,196	5,875,621	5,223,9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터키 직접투자는 경제교류에 비해 미흡한 편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 실적은 2013년 9월 말 기준(신고금액 누계) 13.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36위국임.

- 대 터키 직접투자액: 6,930만 달러('08) → 1억 9,244만 달러('09) → 6,364만 달러('10) → 6,255만 달러('11) → 2억 5,678만 달러('12) → 1억 913만 달러('13.9)

□ 한-터키 양국간 FTA 체결로 향후 교역 및 투자증대 예상

○ 터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국이자 44번째 수입국으로서, 2012년 우리나라의 터키 수출은 45.5억 달러, 수입은 6.7억 달러로 양국간 경제 교류는 정치 외교적 관계에 비해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흑자 규모가 크고, 한-터키 FTA 체결에 따라 향후 교역 및 투자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터키 FTA는 2012년 8월 정식 체결되어 2012년 11월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통과되고, 2013년 1월 터키 의회비준과 3월 정부 서명절차를 거쳐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음.

- 실제로, FTA 발효 이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수출액이 4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34억 달러에 비해 6억 달러 가량 증가 하며, 17.6%의 상승률을 보임.

○ 터키 정부의 육성산업(교통 인프라 및 정보통신)과 우리 나라가 대외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 하려는 산업(에너지),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교통 인프라 및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효과가 큰 품목으로는 TV 수신용 기기, 자동차 부품, 선박, 광학 렌즈류, 철강 등이 꼽히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부문 FTA까지 발효될 경우 한 터키 교역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V. 종합 의견

- 터키는 대규모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임. 최근 주요교역 대상국인 EU의 경기침체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3년 경제성장률이 3.2%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 추세에 있음.
- 2011년 6월 총선으로 집권여당(정의개발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에르도안 총리가 재선임되면서 집권 3기의 국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정치 안정성과 기존의 균형외교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2014년 지방선거 및 대선은 앞두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현 에르도안 총리가 사상 첫 직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임.
-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터키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노력과 특히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이유로 2009년 이후 터키 신용등급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 상품 분야 FTA를 체결하고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 중 발효를 목표로 현재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양국간 투자 및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됨.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